

KIA 타이거즈 '감독 없이 떠나는 어수선한 전지훈련' [뉴스시스Pic]

등록 2024.01.30 18:26:39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서울-인천공항=뉴스시스]최진석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가 2024 스프링캠프를 위해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캔버라로 출국했다.

KIA 타이거즈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손상 행위로 판단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IA는 개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장을 잃었다. 조속히 새 사령탑을 찾아야 하는 대형 악재에 직면했지만, 감독이 불명예를 안고 퇴장한 만큼 차기 감독 선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KIA 선수단은 스프링캠프 출국을 앞두고 김 감독의 경질로 수선한 분위기 속에 1차 스프링캠프지인 호주 캔버라로 향했다. 진갑용 수석코치가 선수단을 추스르고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진 코치는 차기 사령탑이 스프링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팀을 지휘한다.

한편, 특정 커피 업체가 프로야구 구단 KIA 타이거즈의 후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뒷돈을 받고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전 감독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김 전 감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나성범(가운데) 등 선수들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이의리 등 선수들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KIA 타이거즈 김태균 등 선수들이 30일 오후 2024시즌 준비를 위한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 구속 기रो에 놓여있다. 2024.01.30. xconfind@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myjs@newsis.com, xconfin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